

Ted Hildebrandt 박사, 구약 역사, Lit. 신학과 신학 7강

© 2020, Dr. Ted Hildebrandt

구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창세기 3장 강의 7강, 타락 및 가인과 아벨 이야기
창세기 4장에서 다루는 Ted Hildebrand 박사입니다.

A. 검토 및 미리보기 [0:00-1:46]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레위기를 읽으실 것입니다. 현재
기사가 2개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평소와 같이 웹에 있습니다. 웹으로
이동하면 두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윌슨 박사의 저서인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Our Father Abraham)*에는 두 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레위기에서 일부 장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을 골라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 23편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라” 암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뛰어 들고 싶고, 나는 에덴동산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손님이 오는데, 팔레스타인 땅을 걷는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코스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당신은 “아직 에덴동산에 있었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뱀과 뱀이 여자에게 진실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뱀의 간사함과 간교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뱀이 그들이 더욱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3장 22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람[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분석에서는 사탄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B.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과 우리와 악 [1:47-5:25]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이것에 대해 작업하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객관적인 지식은 당신 외부의 선에 대한 지식입니다. 주관적 지식은 자신 내부의 선에 대한 지식입니다(자신 내부의 주관적 의미). 외부에는 객관적인 것이 있고 내부에는 주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 외에 선에 대한 지식도 갖고 계셨습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다고 선언하셨고(*to v*), 그것이 완성된 후에는 *to v* *그래* , 아주 좋아. 그래서 그 자신 외에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 외에는 선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주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악을 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악도 모른다면 그는 순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아시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이제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악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고 싶었던 지식구조입니다.

이제 유혹을 받기 전의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자신들 밖에 있는 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그들 자신의 외부에 있는 선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자기 안에 선함을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선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악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들은 신과 같나요, 아니면 신과 다르나요? 그들은 악에 대한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릅니다.

유혹을 받는 시점은 실제로 참여하기 전, 사탄이 “야, 열매를 먹어라” 라고 말하는 시점이다. 그들은 외부에서 악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습니다. 그들은 뱀에게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갔습니까? 여기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객관적인 지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무엇을 얻었습니까? 악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 이게 거짓말인가요? 예. 뱀/사탄은 그들을 악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참여와 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넘어섰는가? 예. 이쯤 되면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악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C. 유혹의 과정 [5:26-8:19]

나는 유혹의 과정을 거쳐서 이 일을 좀 더 빨리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 하더라” 고 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 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에 보면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혹의 과정이다. 그것을 분석해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 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구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으며 요한일서 2.16에 있는 동일한 세 가지가 창세기 3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에 좋습니다. 성서에서는 “안목의 정욕” 이 “눈에 보이는 바 되었다” 고 말합니다. 과일이 정말 좋아보였어요. 그러면

인생의 자랑이 들어오고, 이것을 “지혜를 얻는 데” 사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혜를 얻는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 그 비용을
 지불하시겠습니까? 과일을 먹으면 현명해진다. 그러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과일을 먹으면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일에는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지혜의 모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의 시험 과정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즉
 욱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3세대의 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남자의 딜레마, 여자의 딜레마와 다른가? 사탄은
 그녀에게 직접 말합니다. 그녀는 뱀과 대화를 나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아담의 딜레마는 다릅니다. 아담이 경험한 일 중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좋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그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나요? 예. 그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것이 이브가 만들어진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유혹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이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아니요,
 나는 열매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또 누구입니까? 그는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선악과를 먹었고 악에 가담하였으므로
 아담의 유혹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과일을 주고 아담은 먹습니다

. 이제 그들은 동일하지만 여전히 다른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D. 타락의 결과 [8:20-18:10]

이제 가을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까? 열여섯 살짜리 아이와 스물두 살짜리 아이 사이에는 무엇이 다른가요? 내 아들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열 여섯 살이었을 때 와 스물두 살 때 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16세 때 그는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아무런 결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젊은 사람은 일을 하면서 “나는 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어” , “결과는 없을 거야” , “나는 그 결과를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여섯 살 때 그는 결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경우, 그는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그의 어머니와 나의 원망이 너무 커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고 그는 이라크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친구였습니다 . 그 친구가 실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는 목에 맞은 충격에서 살아남았고 패치를 받았고 우리는 그가 의료선 헬리콥터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목에 총을 맞았을 때 살아 남았습니다. 동맥을 약 1mm 정도 놓쳤습니다. 열여섯 살이던 내 아들은 불멸의 존재였고 결과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스물두 살이 된 그는 이제 죽음이 무엇인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나요? 예, 이제 그는 행동과 결과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결과와 연결되어 있나요? 그것이 열여섯 살인 사람과 지금(그의 경우에는 스물두 살) 사이의 차이인가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마치 스물두 살 노인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참 한심하다. 그 사람은 인생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성이 성경에서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잠언 전체를 요약하자면 잠언은 대체로 젊은이에게 행동과 인격이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성격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봅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므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숨어 들어간다. 그는 어디에 숨어 있나요? 그는 덩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어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당신이 정원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의 반응임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당신은 “하지만 두려움이 실제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 진짜?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큰 토론을 해야 합니다. 곧 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인간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숨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는 “나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네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나였어. 그녀를 비난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 됐어. 나는 죽어야 마땅해요. 그녀를 비난하지 마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남자입니다. 그가 가서 확인해 보세요. 꽤 한심한 일입니다. 그 남자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

당신이 나와 함께 여기 두신 그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주었고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나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뱀이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뱀아, 너부터 시작하자”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서 여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에게로 옮겨가십니다. 그러면 뱀은 첫 번째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분리입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서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임마누엘.” 끝에 “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지만, 이제 그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인간이 숨어 들어가는 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하나님은 이제 앱 콘디투스(absconditus) 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 즉, 동산에 함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숨겨져 계십니다 . 남자는 그에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사람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보고 시내산에서 산이 흔들리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만하면 그만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류 주위에 이러한 무의식 , 즉 숨겨진 상태 로 들어가셨습니다 . 그런데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무엇을 하는가? 창세기 1-3 장의 나머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과 함께 다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라고 불리나요? “임마누엘” -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런 다음 예수님은 돌아 가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모으시기 위해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 는 인간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의 세부사항을 구속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입니다. 그분은 성막에 오십니다. 그는 어디에 거주합니까? 당신은 “힐데브란트, 당신은 장막의 장들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웨키나 영광, 즉 “영광의 구름” 이 내려오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는 그의 백성과 함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이 하나님 (absconditus) , 감추어진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 다시 그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 이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이끈다. 에덴동산은 성경을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에덴동산도 성경을 끝내는 걸까요? 그게 큰 희망인가요? 그리스도인은 희망적인 사람인가? “아, 세상의 모든 일이 잘못되고 있고 이곳은 터질 것입니다.” 질문: 기독교인들은 희망적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에덴동산을 다시 방문하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인간은 죄의 영향을 받는가? 우리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 이라고 알려 줍니다 . 그러므로 동산의 죄에서 나와서 인류는 죽느니라. 죄에 빠진 타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은 인간뿐입니까? 로마서 8장 22절은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여 구원의 날을 기다리느니라” 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물 자체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어떻게 신음합니까? 기근, 쓰나미, 지진, 전염병, 질병, 암 등 모든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 자체는 모든 것이 바로잡힐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세상의 일이 얼마나 엉망인지 깨닫고 일을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모든 일은 바로잡힐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창조물과 함께 그것을 위해 신음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여 다가오는 구원의 날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까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흠에서 나갔다가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느니라. “너는 흠에서 났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몸으로 지불하는 통행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그의 영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가? 아니면 몸이干嘛도 일어나나요? 그는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라” 등의 증거로 몸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몸이 높아지나요? 예. 우리 몸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갈등과 비난을 갖고 있다. 남자는 여자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여자는 남자를 비난하지만, 이 맥락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비난합니다. 아담은 일어서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 남자는 아내를 비난합니다. 좋은 행동이네요. 여러 번 해봤거든요.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갈등과 비난의 운동입니다. 뒷문으로 들어와서 이 테마를 전개해보고 싶습니다.

E. 창세기 3장의 저주: 뱀의 저주 [18:11-23:30]

그럼 저주를 통과해 봅시다. 우리는 뱀부터 시작하여 거기에서 여자까지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아담은 여자를 비난하고 여자는 뱀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뱀으로 시작해서 다시 여자에게로 움직이시고, 결국에는 남자에게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뱀이 다가오고 하나님은 3장 14절에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먼지” 라는 단어에 유희가 있나요? 아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다마* (אָדָם) 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 이라고 불립니다 . 그래서 그의 이름은 “더스티”입니다. 뱀은 무엇을 먹나요? 먼지. 이 먼지에 놀이가 있습니까? Adam/Dusty가 먼지로 돌아갈 예정인가요? 그게 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담의 이름은 정말 “아담?”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아담의 이름이 아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브의 이름은 이브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기원전 2000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이름은 다른 언어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먼지” 를 의미할까요? 이름의 의미는 아마도 여전히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기원전 2000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정말 피터인가요? 아니면 언어를 오갈 때 다른 이름인가요?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발음되었나요 ?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예수스 (Yehsus)* 로 발음됩니다 . 이제 히브리어로 된 예수의 이름은 “ 여호수아 ” 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 였습니다 . 여호수아가 들리나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의 의미를 취하고 그리스어로 “예수스 (Yehsus) ” 로 나옵니다 . 따라서 언어 간에 이름 변경이 있습니다.

뱀으로 돌아가자 . 뱀은 흠을 먹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다. 지구의 연대와 나이에 관한 일부 논쟁은 아시다시피 성경이 실제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뱀아 네가 배로 다니며 흠을 먹을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이 당신의 머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가? 아직은 예수님께로 가지 마세요. 이 문맥에서 이 “그”는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씨, 곧 사탄의 아들과 여자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겠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리라. 따라서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원시 복음서”입니다. 프로토(Proto)는 ‘첫 번째’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원복음(Proto- evangelium)은 “첫 번째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탄과 뱀에 대한 이 첫 번째 저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 적의가 있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 중 하나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이것을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로 받아들여 이 여자를 통해 뱀이 패배하고 사탄의 후손이 패배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는 뜻 이다 . 첫 번째 저주부터 사탄이 승리하지 못하고 사망과 흠이 승리하지 못하고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과 사탄에 대한 이 저주에는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F. 여자에 대한 저주 [23:31-45:56]

여자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으리라” 나는 이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깔끔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 나에게서 네 명의 자녀와 한 명의 손자가 있으며, 네 자녀 모두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출산에 고통이 있나요? 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아이인 엘리엇은 해병대[보병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엘리엇이 태어났을 때 그는 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의 머리 위에 있고 당신은 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오래된 일이군요. 그래서 나는 호흡 루틴을 시작합니다. 간호사가 저기 밑에 있어요. 내 생각엔, 의사는 어디 있지? 의사는 여기에 없습니다. 간호사가 나를 보더니 “야, 너 의사지? 여기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부인님, 저는 의사지만 그런 종류의 의사는 아닙니다. 나는 호흡을 한다. 나는 이것을 정말 잘 할 수 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하기 시작하니 정말 긴장되네요. 그녀가 나에게 거기로 내려가라고 하면 나는 기절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 끝을 하고 저기에서는 저 끝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여기로 내려오세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의사가 없어요. 이런 소녀, 나는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엘리엇을 구출하는 것을 도왔고 어쩌면 그게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테이프에 있어요. 미안 엘리엇. 하지만 실제로 저는 엘리엇의 넷째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괜찮았습니다. 30분 후에 의사가 거만하게 들어와 “어디 있었어?”라고 말하더군요. 무엇이 더 나빴는지 아시나요? 그 친구가 나한테 1200~1500달러를 청구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아기를 낳았어 너한테 청구서를 보낼 거야 친구야. 사실 그 사람은 개인적인 친구이고 좋은 의사인데 30분 늦게 나타난 게 문제였어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 아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성경은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 아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성경에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저주에 맞서 싸우나요? 예. 저주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녀에게

마취제를 투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는 저주를 내리셨으니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저주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 맞서 싸웁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니 마취제를 주시겠습니까? 저주에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저주에 맞서 싸웁니다. 당신은 저주에 맞서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레드삭스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을 확인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통이 있고 여기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이것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저주에 맞서 싸우며 이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3.16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은 남편을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저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저주의 일부입니다. ‘여자의 욕망’이란 무엇인가? “여자가 자기 남편을 원할지라도 남편은 자기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매우 까다로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자의 욕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6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우선, 그녀는 남편을 성적으로 원할 것이고 그는 “뒤로, 뒤로”라고 말하고 브레이크를 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저는 결혼

생활을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성적으로 원한다는 뜻인가요?
적어도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녀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어하고 남편은 그녀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성 중 한 명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배려하며 온화한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려는 그녀의
욕망입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나는 그 현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Gordon C
ollege를 졸업하려면 Fiddler on the Roof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슨 박사가 나가는 길에 공기총을 들고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Fiddler on
the Roof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Hildebrandt의 일이고 여기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가 있어요. 나는
부업으로 그리스어도 가르친다. 그것은 “나의 크고 뚱뚱한 그리스 결혼식”
이라고 불립니다. 합법적입니다. 완전히 그리스인인 친구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것을 ‘T’로 표현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들어옵니다. “남편은
가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두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내와 저는 그 영화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옵니다. “남편은
집의 머리입니다.” 아내는 돌아섰고 그녀에게는 멘토링하려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 남편이 가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 여자는 옆으로 돌아서서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남편은 가장이지만 아내는 목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돌립니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끝났습니다. 거기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복종하고 싶어하는 것이 저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편을 원한다는 의미에 대한 이 두 번째 선택은 아마도 그다지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여자의 욕망”의 의미에 관한 글을 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창세기 4장 7절에서 똑같은 문학적 문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훌륭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평입니다. 여자의 욕망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려운 구절이다. 해석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구절이 하나 있다면, 알려진 것부터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작업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이 더 명확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살펴보아야 하며, 덜 명확한 것을 명확한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4.7장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네가 옳은 일을 행하면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옳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엮드려 있느니라. 그것[죄]이 당신[가인]을 갖고 싶어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꽤 명확합니까?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준비하는 사자처럼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데, 그는 그것을 제자리에 붙잡아 두어야만 합니까? 죄가 가인을 지배합니까? 응, 그 사람이 형을 죽였어.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 죄가 가인을 압도하고 싶어하듯이, 여자도 자기 남편을 압도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녀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얻은 것은 결혼 생활에 권력 투쟁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저주에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굴복할 것인가? 당신은 이것을 단순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에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이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결혼하면 권력다툼이 일어날까? 한동안 주변에 있었고 다른 결혼 생활도 많이 보았습니다 . 제 딸이 노동절 주말에 막 결혼했어요. 저는 오하이오주로 갔다가 월요일에 차를 몰고 돌아와서 수업 시간에 너무 피곤했어요. 제 딸은 시카고 대학교 변호사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딸과의 결혼 문제로 논쟁을 벌이나요? 그는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는 것처럼 논리적인 주장을 사용합니까? 문제는 내 딸이 아버지보다 너무 밝고 밝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반박합니까? 그들은 이 점점 커지는 논쟁에 참여합니다. 그는 사건에서 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흠칩니다. 변호사라면 긴장을 풀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주장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딸이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곧 나는 그들이 서로를 죽이지 않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 물러나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걱정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나는 많은 설교를 했고, 내 딸의 결혼식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뿐이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결혼 생활에서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까? 해서는 안 될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하고, 앞으로 돌진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즉, 당신이 하는 춤이 있고 춤추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이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뇨, 아뇨, 우리는 갈등을 겪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를 정말 사랑해요.”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끔찍해요.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와 싸워보세요.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하시네요. 아마도 나쁜 조언일지도 모르지만... 결혼 생활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큰 논의는 아닙니다 . 심사위원들이 큰 논의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의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전기기사나 전기기사의 도우미처럼 남자에게 복종하거나 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전기기사가 주 업무입니다. 도움은 드라이버 등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고퍼입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돕는 자로 여겨졌고, 이 “돕는 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녀는 남자에게 이차적인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etzer* 입니다 . 당신은 이 단어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Eve 외에 *etzer* 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 옛 찬송가인 “하나님은 지난 시대에도 우리의 도움이시요, 앞으로도 우리의 소망이시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돕는 자라고 불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에벤에셀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에벤*은 “돌”을 의미합니다.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이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다. 하나님 자신은 자신을 *엣처(etzer)* 라고 부르시지만, 하와가 돕는 자였던 것처럼 그가 돕는 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돕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브가 여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신도 복종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고,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는 그가 '왕'임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은 동물들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보여주며, 그가 그녀에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1장과 2장에는 하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으로 주어지지만 그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담이 “흠이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당신은 죽음의 여자, 당신은 여자를 저주합니다.” 아, 실례합니다. 아담이 그런 일을 합니까? 여기서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며 저주를 받은 직후에 그녀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모두는 *우리 가 레하임* 이전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살아 있는 자” 곧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 부르십니다. 그는 그녀를 저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통해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로 여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이 이 여자에게서 나리라. 그는 자기 아내를 보고 모든 산 자의 어머니를 봅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녀의 성격과 운명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녀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으며 나는 여기 성격보다 그녀의 운명을 더 좋아합니다. 즉, 그녀를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씨가 나올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이것을 통해 그녀를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특히 그는 방금 “아담, 당신은 죽었고, 당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브에서는 언젠가 이것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는 아내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신약에서 두 구절만 하고 구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직분을 맡았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구약에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므로 차라리 유대인이 되는 것이 나으니, 이방인은 외인이 되었음)도 없고 종이도 자유인도 없느니라(그리스도 안에서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권력 구조에 대한 힌트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제가 자란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거기에 그리스 모델을 맞추셨습니다. 내가 자란 교회에서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는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나는 이제 남편이다 . 너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말 잘 됐어요. 제 아내는 매우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가르친 것을 당신에게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토론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돌리는 목이었습니다. 머리는 자신이 머리라고 생각했지만 목이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흥미로운 점은 제가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성경을 해석할 때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문맥. 맥락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에베소서 5.22에 있을 때, 5.21이 문맥에 상당히 가깝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왜 나는 어렸을 때 에베소서 5장 21절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까? 앞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예. 여기서서는 서로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예. 그렇다면 질문은 내 아내가 나에게 봉사하는가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르시시스트적인지 아시나요? 문제는 오히려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녀의 질문은: 남편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합니까?

문제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권력투쟁은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저주에 맞서 싸웁니다. 나의 모델은 누구인가? 여기 그레이스 형제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나는 우주의 왕이니 나에게 옆드려
 경배하라. 나는 우주의 왕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너희들은 하인이고
 나는 우주의 왕이다 . 아니요.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신을 벗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Grace Brethren이라면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은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권력투쟁은 끝났는가? 여기에
 우주의 왕이 내려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권력 투쟁?
 아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분은 자신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실제로
 왕이 되십니다 . 그게 리더십인가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나가서 죽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 구절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결혼 갈등에서 권력을
 잡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권력을 움켜쥐는
 매우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어
 그것을 포기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은 갈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어떻게 그녀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 그게 저주에 맞서 싸우는 방법인가요? 저주는 이러한 권력 투쟁,

결혼 생활에 이러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봉사함으로써 이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G. 사람에게 대한 저주 [45:57-52:59]

이제 인간의 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저주에 직면해야 한다. 일은 저주인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것을 먹으리라. 땅이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희는 밭의 채소를 먹게 될 것이다.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일은 저주인가? 당신은 “그렇습니다. 일은 저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십시오 .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기 전 동산에 있었을 때, 아담에게 해야 할 일이 주어졌습니까? 아담은 정원을 가꾸고 가꾸는 일을 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동산에서 일을 하였습니까? 예. 일은 저주가 아니다. 저주는 일의 무익함이다. 무언가를 위해 일한 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해봐” 라고 말하는 멋진 컨트리 노래가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노래를 나가서 부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것을 한다” 고 말한다. 어차피 그렇게 해야 하는 인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당신은 무언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 다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일의 무익함;

여러분 중 일부는 그 무익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음과 영혼을 무언가에 쏟아부었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면 그것은 파괴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일의 무익함이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자신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5시에 퇴근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입니다. 주말에는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 일이 싫다. 그들은 월요일에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파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살고 있습니까? 내 동생은 Buffalo의 대형 지하철 시스템 부사장이고, 이제 우리 둘 다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큰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 Gordon College 에서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 저는 매일 5시나 5시 30분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이 수업이 끝나면 내일 아침에 보실 수 있도록 자정까지 이 비디오를 편집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난 내가하는 일이 좋아. 동생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싫다.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열정이 하나로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열정과 직업의 융합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일은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괴롭힌다.

인간은 먼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먼지가 되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시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제가 도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했다.

여러분 중에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이 문제인가? 죽음은 큰 문제입니다. 나는 죽음을 싫어합니다. 나는 암이 아버지에게 한 일이 싫습니다.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의 헛됨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가장 큰 문제를 가져오고 이것을 지켜보느냐? 나는 무엇을 함으로써 죽음을 정복할 것인가? 나는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무덤 너머의 희망이 있습니까 ? 죽음이 최종 답인가 ? 죽음은 이 일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아빠도 일어나실 거예요. 나는 이 수업을 할 때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늘 궁금하다. 그 사람은 아마 거기서 웃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버지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컨셉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산으로 돌아가는 임마누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히 그와 함께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게 최고야. 죽음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없애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 인간은 투쟁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너희들보다 시간이 적지만 괜찮아.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예정입니다. 창세기 1-3장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 전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창조 기사와 동산은 우리를 그분께로 다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구성합니다. 당신은 출애굽기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보셨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그분께서는 내려오셔서 그 종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데려가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그의 땅에 풀어 놓았습니다 .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바벨론의 속박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다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영원히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은 그것을 설정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운동이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항상 “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는 이제 영원히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의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만나를 주시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레인푸드처럼 “이거 질렸어. 늘 똑같은 음식이요.” 캠퍼스에 살지 않는 우리 대부분은 오늘 밤 집에 가서 닭고기와 브로콜리를 요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요리를 해야 하는데 요리를 할 수 없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H. 가인과 아벨 [53:00-61:29]

]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살인에 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려고 합니다.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아벨인가, 가인인가? 아벨은 소제를 드린다. 소제에는 피흘림이 있겠느냐? 소제에는 피흘림이 함께 합니다. 소제라고 하면 소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Cheerios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곡물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밀과 보리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인 밀과 보리를 제물로 바쳤습니까? 예. 어느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아벨의 제사는 피를 흘린 것이므로 기쁘게 받아들여진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린 제물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것은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곡식과 곡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신 진짜 이유가 그것입니까? 내 대답은 아니오 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소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가? 예, 그는 레위기 2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수확의 첫 열매인 곡식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곡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합법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그가 제공한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형을 향한 악한 마음과 미움을 품고 있었습니까? 문제는 그가 제공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아벨이 가장 좋은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물 자체에 있지 않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었을 때 그 죄를 제물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그것은 제물의 세부 사항보다 더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물의 유형으로 분류하려고 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그게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희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정말로 구하시는 것이 자비와 공의와 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초점을 맞추신 것 입니다 .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셔서 “가인아, 네가 이 일을 하면 네 몸이 나빠지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는 모른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런 고전적인 라인을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할 고전적인 대사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은 성경의 고전적인 구절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제안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은 대답이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이 이 수사학적 질문에서 암시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니다. 가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 그래서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구성 측면에서 많은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족 내에서 좋은 형제/나쁜 형제 상황을 본 적이 있나요? 형제자매의 경쟁심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나요? 당신은 가족 중 형제자매들 사이에 경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다섯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의 마지막 여동생은 우리보다 5~6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제가 자랐을 때 여러분의 문화에서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다. 나는 그를 벨트의 남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이라고 말하자마자 “학대, 학대. 그는 실제로 당신을 벨트로 때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것을 학대가 아니라 징계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나요? 대답은 “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엄격했습니다. 그는 나와 내 동생에게 매우 엄격했지만, 거기에 5년의 공백이 있었던 내 여동생과 내 여동생, 내 동생과 나는 물려서서 그녀가 모든 것을 어떻게 도망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자신의 새끼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우리 질투했나요? 우리는 차이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뭔 일 있었 니? 여기서 일어난 일은 아버지가 나이가 들수록 느슨해 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경쟁적 성격은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형제 간의 경쟁에 대해 말해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형제 간의 경쟁에 대한 예를 들어 보십시오. 레아와 레이첼은 형제간 경쟁을 벌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좋은 예입니다. 형제 간의 경쟁 이라는 주제는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큰 주제입니다.

어렸을 때 형과 나는 맨날 싸웠어요. 한번은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화가 나서 버터 나이프를 집어 들고 있는 힘껏 나한테 던졌어요. “이런 소여, 칼로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보호하기 위해 팔을 위로 던졌고 칼은 내 팔에 닿아 거기에 매달린 내 팔에 꽂혔습니다. 나는 이 칼을 내 팔에 걸쳤을 때의 느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 동생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미쳤지만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그 후 우리 둘

다 즉시 '아빠가 집에 오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나쁘다. 그 사람이 집에 오면 우리를 죽일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에게 갔다. 우리는 왜 어머니를 거기에 데려왔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맞서야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그녀도 그것을 꺼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그것을 직접 꺼내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우리는 차 소리를 듣고 이층 침대 밑에 숨어 언덕으로 달려갑니다. 우린 준비되었다. 아빠는 집에 오시고, 엄마는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갑자기 아빠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지하실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카인! 카인! 그 사람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내 동생과 나는 둘 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노인은 그냥 웃고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항상 매우 특별한 구절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버터칼을 던지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I. 가인에 대한 저주 [61:18-64:41]

이제 가인의 저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인은 저주를 받았고, 가인의 저주는 어떻게 되나요 ? 가인의 저주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주의 일부로 이곳 저곳을 떠돌며 방랑자로 선고받았습니다. 가인은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살 것입니다. 방랑자입니다. 이는 그가 남은 생애 동안 거의 혼자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외로움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중 하나입니까?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혼자 보냈고 우주 전체에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최악의 감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경험한 것 중 가장 우울한 일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방랑자일 때 우리 문화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나요? 젊을 때는 꽤 안정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많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나는 결혼 후 처음 8년 동안 여덟 번이나 이사했습니다. 이동 중 하나는 이스라엘로, 다른 하나는 테네시 주 브리스톨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여덟 번 이사를 하고 얼마 후 이사하고 이사하고 또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행하기 좋은데, 여행을 너무 많이 해서 늘 여행이 지겨워서 그냥 집에 가고 싶은 적 있으신가요? 집이란 무엇입니까? 아내와 나는 지금 우리에게 집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잘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이 있는 곳이 집인 것 같아요 .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집에 대한 느낌, 장소와 소속감이 있고 거기에 자신의 뿌리를 두었습니다. 나는 우리 문화가 방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황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방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이런 방황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탐험할 때 방황하는 것은 괜찮지만, 집에 대한 느낌, 뿌리 깊은 느낌, 소속감 또는 장소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방랑자가 됩니다. 4장에서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Cain이 무엇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만큼이나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잠깐만요, 내가 내 동생을 죽였는데 당신이 아직 십계명을 주지 않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까? 인간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롬 2장). 그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J. 플러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64:42-68:25]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홍수입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홍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와 결혼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니라 하신지라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 나는 세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의 다양한 시점에서 이 각각의 것을 가르치고 믿었음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 보장되는 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답변”이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그토록 진노하셨습니까? 왜 그들은 거인이나 네피림인 아이들을 낳았습니까?

그들의 아이들은 왜 그토록 특별했을까? 그건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건너 뛰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땅이 포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는 말을 건너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땅을 멸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만이 아니라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땅을 멸망시키십니다. 폭력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제 *Hamas* 라고 하면 어려운 “h”가 됩니다. Nate는 부식질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부식질*을 좋아 하지만 미국에서는 부식질이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진짜 음식을 먹습니다. 놀랍다. 필라델피아 밖에서 필라델피아 치즈스테이크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세계에서 부식질이 가장 좋은 곳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바클라바를 가끔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마스* , 음식부터 그만하자. 너희들은 왜 그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하마스라는 단체에 대해 들어봤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룹은 하마스(Hamas)라고 불립니다. 그 단어는 아랍어와 히브리어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서가 있습니까? 폭력은 그들의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이 일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토론을

중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창세기 전체를 60초 안에 완독하는 것입니다. 60초 후에 성경 로빅을 하고 나면 끝납니다.

Dave Clemmer 와 Ted Hildebrandt 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자: Ted Hildebrandt -2